

산지유통인이 주도하는 김치제조용 원료배추의 계약생산과 계약지역의 농업 변화

김서연* · 장영진**

Contract Farming of Raw Cabbage for Making Kimchi, Led by Local Traders of Agricultural Produce, and Changes Brought to the Agriculture of the Contract Area

Seoyoen Kim* · Youngjin Jang**

요약: 본 연구는 김치제조업체 D기업에 원료배추를 공급하는 산지유통인과 배추 주산지 농가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사례 계약생산의 주체별 역할을 규명하고 계약생산에 의한 계약지역의 농업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계약지역에서 배추농업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는 농업인으로부터 산지유통인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산지유통인은 주산지 배추농업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서 생산의 전과정을 총괄하면서 계약지역 배추농업 전반을 통제함에 따라 농업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둘째, 산지유통인은 계약농가의 후반기 농작업을 전담함에 따라 배추 주산지에서 농업인에 버금가는 핵심적인 영농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계약 물량 확보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산지유통인의 요구와 고령농의 증가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주산지 농가의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요어: 계약생산, 산지유통인, 김치제조업체, 배추 주산지, 계약지역 농업변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 of each party in relation to the contract farming of cabbage which is taking place under the contract between the local trader of agricultural produce that supplies raw cabbage to company “D,” a manufacturer of kimchi, and the cabbage farm where the cabbage is grown, and to describe the changes brought by the contract farming to the agriculture of the contract a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iscovered that, while the farming of cabbage in the contract area used to be led by farmers, it is now increasingly being controlled by the local traders of agricultural produce. First, as the key player in the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 cabbage farming in the main cabbage producing areas, local traders of agricultural produce are replacing the role of farmers by supervising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and controlling the overall cabbage farming in the contract area. Second, in the main cabbage producing areas, local traders of agricultural produce are becoming a key farming entity by carrying out functions that are comparable to those of farmers and playing a major role in the second half of the agricultural work at the farms in the contract area. This can be considered as the result of the balance between the demands of the

* 제1저자: 조원고등학교 교사 (Teacher, Jowon High School, kseo1111@naver.com)

** 교신저자: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angyj@knue.ac.kr)

local traders of agricultural produce who need to secure contract volume and manage the quality of their produce and the demands of the farmers in key cabbage producing areas who are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farmers and a shortage of manpower.

Key Words : contract farming, local traders of agricultural produce, manufacturer of kimchi, main cabbage producing areas, agricultural changes in the contract area

1. 서론

서구에서는 식품가공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1980년대부터 과일과 채소, 축산물 등에서 계약생산이 보편화되었다(Watts, 1994; Da Silva, 2005). 농산물의 계약생산은 ‘하류 구매자가 불확실성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설계한 조직적 행위의 총체(Pritchard and Connell, 2011)’로서 수요기업 및 유통업체 등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이는 지역농업에 대한 농업 외부 행위자의 진입을 의미하므로 계약자(contractor)와 계약농가 및 계약지역 등 다양한 결절간 연계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계약생산은 계약지역의 농업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기제 가운데 하나로 이해된다(Watts, 1994; Morrison *et al.*, 2006; Imbruce, 2008; Pritchard and Connell, 2011; 장영진, 2013; 2015; 2016a; 2016b).

계약생산은 계약품목의 특성과 지역농업의 발전경로에 따라 계약자와 농가의 역할이 달라지며 특히 농외 부문에서 진입한 계약자의 역할과 통제수준에 따라 지역농업은 상이한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품목 특성과 계약지역의 영농환경을 고려한 계약주체별 역할에 대한 고찰은 계약지역 농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계약지역 농업의 실질적인 주체와 그에 의한 지역농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Watts, 1994; Da Silva, 2005; Barrett *et al.*, 2004; Biswas *et al.*, 2013; Otsuka *et al.*, 2015; 장영진, 2013; 2015; 2016b; 2018; 이현정·장영진, 2022).

국내에서도 1980년대부터 수요기업의 필요에 의해 청과 부문에서 계약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무·배추를 주원료로 하는 김치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김완배·김성훈, 2001). 국내 식품제조업은 국내산 농산물의 사용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김치제조업은 주원료를 대부분 국내 농가에서 조달하고 있어 국내 업근채류 주산지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국내 김치제조업체는 다양한 경로로 원료배추를 조달하는데 김치 산업이 성장하던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가장 중요한 공급 주체는 산지유통인이다. 이들은 계약생산을 통해 대량의 배추를 조달하고 이를 김치 제조업체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지유통인은 전국의 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집·출하 뿐 아니라 후반기 농작업에도 참여하면서 계약지역 배추농업의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산지유통인은 산지수집상 또는 중간상인이라고도 하는데 법률상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된다(「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조」). 그러나 실제 산지유통인은 농산물의 생산·포장·출하·저장·가공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산지유통인이 배추 주산지 농가와 맺은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주체별 역할을 규명하고 계약생산에 의한 계약지역의 농업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대 김치제조업체 D기업에 원료배추를 공급하는 산지유통인(K씨)과 배추농가 간 계약생산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D기업은

1980년대 설립된 김치제조업체를 인수하면서 이 분야에 진입했고 내수용의 횡성공장과 수출용의 거창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업은 2022년 기준 소매점 매출 약 1,340억원, 시장 점유율 42.2%를 기록했으며 오늘날 수십여 개 국가에 김치를 수출할 뿐 아니라 폭증하는 현지 수요에 부응하고자 해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식품기업이다. 한편 D기업과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 산지유통인 K씨는 현재 산지유통인 단체 한국농업유통법인 강원연합회 회장으로서 경력 40년의 산지유통인이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는 오늘날 대량의 원료배추를 공급하고 있는 강원도 고령지 및 준고령지²⁾와 전라남도 해남진도 일대 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보면, 첫째, 국내 김치제조업의 성장 과정과 원료배추의 수급구조를 설명하고, 둘째, 산지유통인과 농가 간 계약생산의 성립 배경과 계약지역 선정 배경을 살펴보고, 셋째, 계약주체별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계약지역의 농업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해 김치제조업 및 배추농업 관련 문헌자료와 통계자료를 구득하고 사례 산지유통인을 비롯하여 사례 기업과 배추 주산지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심층면담에는 산지유통인 3인, 배추농가 7농가, 한국농업유통법인의 2인, 농자재유통업의 2인, 농업협동조합의 2인, 연구기관의 2인, 사례기업의 2인, 공공기관의 2인 등 총 22인이 참여했다. 주요 심층면담 대상은 한국농업유통법인 강원연합회 대표이자 계약생산을 통해 사례 기업에 9년째 배추를 공급하고 있는 산지유통인 K씨를 비롯하여 횡성군 소재 W영농조합법인 대표 J씨, 해남군 소재 H유통 이사 K씨 등 산지유통인과 D기업 본사 홍보실이다. 이밖에 계약생산에 의해 배추를 생산하는 강원도의 6개 농가와 전남 해남군의 1개 농가, 강원도 평창군 소재 D원예농협 계약재배 담당자와 태백시 소재 T농협 산지유통센터장, 전남 해남군 소재 비료

소매업체 대표, 강원도 횡성군 소재 H농자재마트 대표 그리고 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부장 및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각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다양한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횡성군청의 농업과 주무관, 고령지농업연구소 연구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추 관측 담당자 등 유관기관에 대한 면담을 통해 논의를 보충했다. 이와 같은 현지조사와 심층면담은 2021년 9월, 12월, 2022년 6~7월, 2024년 1월에 주로 이루어졌다.

2. 김치제조업의 성장과 원료배추 수급구조

1) 김치제조업의 성장

국내에서 김치제조업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로서 한국전쟁 이후 김치가 군 급식용으로 납품되면서 상품화가 시작되었다.²⁾ 이후 상품김치가 본격적으로 생산된 것은 1960년대~1970년대로서 파월 군인과 중동 근로자에 대한 김치 통조림 공급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산업발전과 단체급식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품 김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김치 수출도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김치 제조업체가 설립되었고 시설 및 공정이 현대화되었다(김광억 외, 2013; 조재선, 2016). UR 협정 이후로는 농협이 국내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국에 김치공장을 설립했다. 2018년 현재 국내에는 452개 김치제조업체가 운영되고 있다(세계김치연구소, 2019).

김치는 생산지에 따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나눌 수 있고 국내산은 다시금 자가 조제 김치와 제조업체의 상품김치로 분류한다. 세계김치연구소의 《김치 산업동향》에 따르면 2010년 만해도 가구 및 외·급식

업체가 생산한 자가 조제 김치가 전체 소비의 73%(약 147만 톤)를 차지했다. 이후 상품김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자가 조제 김치는 60% 내외로 감소한 반면 김치제조업체가 생산한 국내산 김치는 25% 내외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표 1).

2) 김치제조업의 원료배추 수급구조

원료배추의 수급구조는 국내산 원료의 사용 정도와 계절별 공급구조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원료배추의 생산지로 보건대 김치제조업은 국내산 원료를 기반으로 산업이 영위되는 국내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로 나타났다. 국내 식품제조업계의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다(31.7%).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사용되는 옥수수과 밀은 국산 사용량이 각각 0.1%에 불과하고 이를 포함하는 ‘곡류 및 곡분’의 국산 비중은 7.7%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3). 반면 김치제조업은 주원료 및 부재료 등에서 국산 원료의 비중이 매우 높다(97.01%, 2021년 기준)(표 2). 이를 ‘엽근채류(무, 배추, 당근, 절임배추)’로 한정해보면 ‘김치류’에 사용된 엽근채류의 국산 비중은 99.93% 그리고 배추만 보면 99.99%에 달한다.

둘째, 원료배추의 계절별 공급구조는 제조설비의

표 1. 김치생산 주체별 생산 추이

(단위: 톤, %)

연도	국내 생산				국내생산 합계	수입	합계
	제조업체	자가 조제					
		가구	외·급식업	소계			
2015	438,000 (26.6)	871,000 (52.9)	113,400 (6.9)	984,400 (59.8)	1,422,400 (86.4)	224,124 (13.6)	1,646,524 (100.0)
2017	444,000 (22.9)	824,000 (42.4)	399,000 (20.5)	1,223,000 (63.0)	1,667,000 (85.8)	275,631 (14.2)	1,942,631 (100.0)
2019	485,588 (25.5)	746,952 (39.2)	367,823 (19.3)	1,114,775 (58.5)	1,600,363 (83.9)	306,050 (16.1)	1,906,413 (100.0)
2021	434,456 (24.7)	779,693 (44.4)	302,168 (17.2)	1,081,861 (61.6)	1,516,317 (86.3)	240,606 (13.7)	1,756,923 (100.0)

자료: 세계김치연구소, 2023, 2021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주: 이 자료는 제조업체, 외식업체, 학교, 소비자 등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임.

표 2. 김치류 원료(엽채류)의 생산지별 사용량(2021년)

(단위: 톤, %)

김치류 원료		총 사용량		국산 사용량		수입산 사용량	
전체		614,413	(100.00)	596,024	(97.01)	18,390	(2.99)
엽근채류	소계	512,813	(100.00)	512,422	(99.93)	391	(0.07)
	배추	414,723	(100.00)	414,696	(99.99)	27	(0.01)
	무	97,461	(100.00)	97,461	(100.00)	0	(0.00)
	당근	629	(100.00)	265	(42.13)	364	(57.87)
	절임배추	13,523	(100.00)	13,523	(100.00)	0	(0.0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주: 김치류 원료에는 엽근채류 이외에 곡류, 두류, 양념채소, 과일채소, 특용작물, 축산물, 수산물, 전분, 당류, 식초 등이 있음.

가동 기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제조업 발전 초기만 해도 공장 가동 기간은 가을배추 수확기로 제한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배추의 연중 공급을 기반으로 연중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기준 김치제조업의 설비 가동률은(표 3) 연평균 67.8%이고 전반적으로 가을철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74.5%). 이를 규모별로 보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연평균 63.8%,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업체는 연평균 80.9%다. 사례 김치제조업체 D기업은 연매출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최대 기업임을 감안할 때 사례 기업의 설비 가동률은 위의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제조설비의 연중 가동은 상품 김치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원료의 연중 공급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배추는 지난 60여 년 간 출하 시기가 지속적으로 연장되었다(표 4). 1950년대

만 해도 배추는 가을철 위주로 공급되었으나 점차 저장 및 시설 배추와 고랭지 배추가 추가되면서 봄철과 여름철로 출하시기가 연장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겨울철 저온을 견딜 수 있는 신품종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재배되면서(디지털해남문화대전) 연중 공급이 시작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제주도보다 물류비용이 저렴한 전남 해남·진도를 중심으로 겨울철 월동 배추의 재배 및 저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노지배추가 연중 공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작형별 재배면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표 5) 1980년만 해도 가을배추 55.6%, 봄배추 37.6%로 봄·가을배추가 대부분을 차지했다(93.2%). 이러한 경향은 점차 완화된 2022년 기준 봄·가을 배추의 비중은 72.5%로 감소했고 여름배추와 겨울배추는 각각 14.5%와 13.0%를 차지하면서 연중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 김치제조업체의 시설대비 가동률(2019년)

계절별 가동률		연평균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겨울 (12~2월)
전체		67.8	64.6	65.0	74.5	67.2
업체별 매출액	10억 원 이하	63.8	60.3	60.1	71.8	63.1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70.0	67.7	65.8	75.8	70.9
	3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71.3	66.7	69.9	77.6	71.2
	100억 원 초과	80.9	74.3	79.3	87.9	82.1

자료: 세계김치연구소, 2021,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

표 4. 배추 공급체계의 변천

연도	주요 출하 시기				
	10~12월	1~3월	4~5월	6~7월	7~9월
1950~1960	가을배추(전국)	<저장배추>	-	-	-
1961~1975	"	<저장배추>	<시설 봄배추>	노지 봄배추	고랭지 배추
1976~1990	"	<월동배추>(제주)	<시설 봄배추>	"	"
1991~1999	"	월동배추(남해안)	<시설 봄배추>	"	"
2000년 이후	"	"	저장배추(남해안)	"	"

자료: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편찬위원회(2008)

주1: < >는 오늘날 거의 사라졌음.

주2: 1~3월 ‘저장배추’는 가을배추를 저장한 것이고 4~5월 ‘저장배추’는 월동배추를 저장한 것임.

표 5. 전국의 작형별 배추 재배면적 변화

(단위: ha, %)

연도	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		합계
1980	19,417	(37.6)	3,478	(6.7)	28,704	(55.6)	-	-	51,599 (100.0)
1990	19,559	(41.2)	4,983	(10.5)	22,953	(48.3)	-	-	47,495 (100.0)
2000	25,182	(48.6)	10,206	(19.7)	16,413	(31.7)	-	-	51,801 (100.0)
2010	9,801	(34.7)	4,929	(17.4)	13,540	(47.9)	-	-	28,270 (100.0)
2020	7,816	(25.3)	5,056	(16.3)	13,854	(44.8)	4,224	(13.6)	30,949 (100.0)
2022	8,196	(26.8)	4,421	(14.5)	13,953	(45.7)	3,967	(13.0)	30,537 (100.0)

자료: 통계청, 농작물 생산조사(채소생산량, 1980~2022);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2022)
 주: 봄배추는 노지와 시설을 합산한 것임; 2010년부터 가을배추는 시설배추를 포함한 것임.

3) D기업의 원료배추 조달과 산지유통인

국내에서는 김치산업 초기만 해도 원료배추를 시장에서 조달했으나 상품김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김치제조업에 대기업이 진출한 1980년대부터는 주로 산지유통인(김완배·김성훈, 2001)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전 회장 B씨의 증언에서도 국내 주요 “김치제조업체들은 창업 당시부터 산지유통인을 통해” 배추를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024. 1. 27 면담). 과거 산지유통인으로 활동하던 J씨의 증언에서도 국내 주요 기업은 이미 1980년대부터 산지유통인으로부터 배추를 조달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이거[농자재마트] 하기 전에 산지수집상 해서 30년이나 계약재배해서 D기업에 보냈었어. D기업은 배추 대부분 산지수집상한테 구매하지.
 - 황성군 소재 H농자재마트 대표 J씨 면담(2021. 9. 30)

오늘날 D기업은 필요한 물량 전체를 산지유통인 비롯한 다양한 주체와 사전 계약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표 6). 사례 기업이 산지유통인, 품목농협, 지역농협, 개별 농가 등 다양한 공급처를 확보한 것은 작황 및 가격 변동성이 큰 배추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T농협 산지유통센터장 R씨 면담, 2022. 1. 12). 구체적으로 D기업은 산지유통인으로부터 원료배추의 70~80%를

표 6. D기업의 원료배추 조달 계약(2021~2022년)

계약 대상	내용	공급 비중
산지유통인 (4~5명)	· 산지유통인들이 김치생산 초기부터 생배추 공급 · 산지유통인들이 전국 주산지 농가와 계약생산	70~80%
생산자단체 (D원예농협과 T농협)	· D원예농협: 2010년부터 D기업에 절임배추 공급 · 전국 주산지의 40농가(강원도 30농가)와 매취형 계약생산(331ha, 농가당 평균 8.3ha) · T농협: 2020년부터 생배추 공급(과거 산지유통인을 통해 공급) · 역대 조합원 농가 50여 곳과 수탁형 계약생산 ³⁾	20~30%
농가(D기업 본공장 입지지역)	· D기업의 요청에 따라 군청이 대농 위주로 추천; 계약 시 3자 협의 · 2021년부터 D기업과 4농가 간 계약생산(18ha, 농가당 평균 4.5ha)	2~3%

자료: 산지유통인 K씨, D원예농협 계약재배 담당자 Y씨, T농협 산지유통센터장 R씨, T농협 고랭지배추공선출하회장 K씨, 황성군청 농정과 주무관 C씨 등과의 면담 내용을 종합한 것임.

표 7. D기업과 산지유통인의 계약 특성

구분	내용
계약 방식	. 기업과 산지유통인 간 문서 계약 (산지유통인과 농가 간 문서 계약)
계약 단위	. 기업과 산지유통인은 무게(kg) 단위 계약 (산지유통인과 농가는 면적 단위 계약)
계약 기간	. 1년 계약이 보편적임. 단기계약도 있으나 보통 재계약에 의해 연장함
가격 결정	. 산지유통인이 가격 제시 후 기업이 결정, 산지유통인은 가격 수용자
품질 기준	. 중량 2.5kg 이상의 병충해 없는 배추
인도 시점	. 기업의 일정에 따라 정해진 물량 인도

자료: 산지유통인 K씨, 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전회장 B씨, 황성군청 농정과 주무관 C씨 등과의 면담 내용을 종합한 것임.

조달하고 D원예농협과 T농협 등 생산자단체로부터 20~30%를 그리고 배추농가와 직접 계약을 통해 2~3% 정도를 공급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배추농가와 직접 계약 생산은 1회성으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크고 계약물량도 매우 적다. 이는 계약기업이 후반기 농작업을 산지유통인에게 맡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작업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D기업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황성군청 농정과 주무관 C씨 면담, 2021. 12. 13). 이상과 같은 공급비중으로 보건대 공급처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D기업의 주요 조달처는 산지유통인으로 이해된다.⁴⁾

김치제조업체 D기업은 제조설비의 연중 가동을 위해 원료의 안정적 조달이 긴요하므로 산지유통인을 선정함에 있어 취급규모와 함께 계약 물량의 납기 준수 여부를 고려한다. 산지유통인의 입장에서는 D기업과의 계약이 다량의 배추를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대형 수요처 확보라는 점에서 중시된다. 사례 산지유통인 K씨는 D기업과 도매시장에 각각 50%씩 출하하고 있다.

D기업과 산지유통인의 구체적인 계약 특성을 보면 (표 7) 산지유통인은 D기업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가들과는 별도의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단위는 기업과는 무게로, 농가와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 결정은 산지유통인이 가격을 제시하고 기업과 조율하게 되는데 산지유통인은 가격 수용자의 입장이어서 가격 협상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농산물 인

도 시점은 계약 시 기업이 제시한 물량에 따른다. 다음은 사례 산지유통인 K씨의 농산물 인도 시점과 물량 할당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D기업에서 필요한 김치 물량은 미리 계약할 때 몇 톤, 몇 톤 나오지. 몇 월에는 몇 톤, 몇 월에는 몇 톤 이렇게 월별로, D기업에는 내가 배정받은 대로만 물량을 넣어. D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 기준에 맞는 걸 D기업에 보내고 기준을 미달되는 거라든가 또 남는 물건을 시장으로 보낼 수 있지.

- 산지유통인 K씨 면담(2022. 8. 31)

3. 산지유통인과 농가 간 계약생산의 성립 배경과 계약지역 선정

1) 계약생산의 성립 배경

계약생산이 성립된 배경은 무엇보다 품목 자체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집중출하가 이루어지는 저장성 낮은 농산물은 계약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진다(장영진, 2016b). 배추는 이러한 특성에 더하여 노지재배 비율이 높아(93.5%,

2020년)(농림축산식품부, 2021)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관리 수준에 따른 생산량 차이가 큰 작물이어서 생산의 불확실성이 크고 이와 관련하여 재배면적의 변동성도 크다. 결과적으로 산지유통인의 관점에서 볼 때 배추는 필요한 물량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작물이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재배 면적과 생산량 추이(그림 1) 그리고 가격변동(표 8)에서 확인된다. 배추농업은 재배면적 기준으로 1971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

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해마다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 이는 가격 등락으로 이어져 연평균 가격은 물론 월별 가격 변동이 크고 동일한 계절이라 해도 연도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이와 같은 품목 특성은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추진하는 배경이 된다.

이와 같은 품목 특성은 배추 농가가 계약생산에 참여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더욱이 고령농의 증가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농가에서 농작업 인력 및 수요처 확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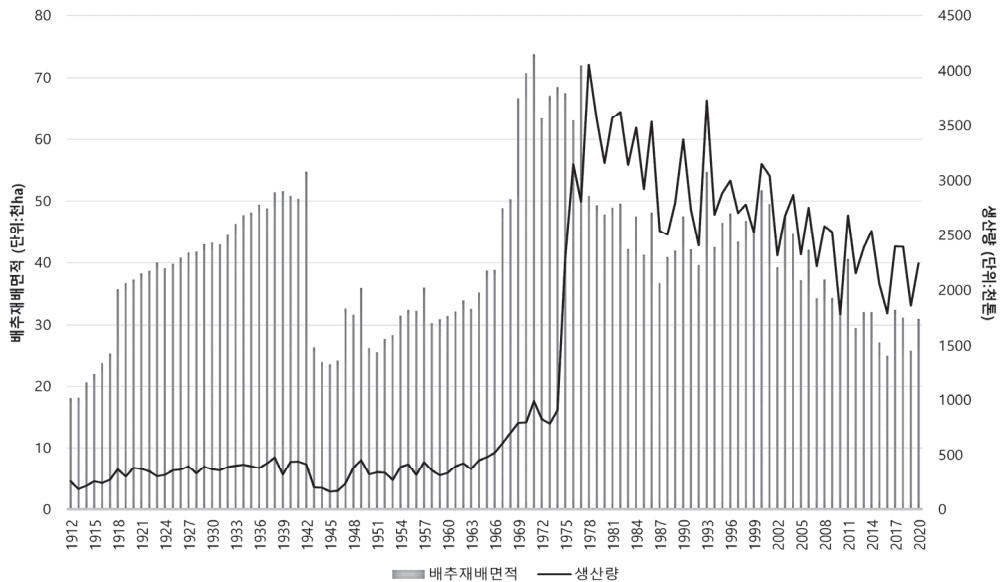


그림 1.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1912~2020년)

자료: 통계청, 광복이전통계(채소, 1912~1943); 통계청, 한국통계연감(채소류 수확량, 1943~1961);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2019); 통계청, 채소생산량(엽채류, 1980~2020)

주1: 1912~1943년은 전국 자료임.

주2: 관계기관에서는 1975년 배추 생산량이 급증한 배경을 통계지표의 변화로 추정함(통계청 농어업통계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고령지연구소 P연구관 등과의 면담 내용을 종합한 것임).

표 8. 배추 도매가격 변동

(단위: 원/10kg)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18	4,840	6,276	6,022	5,311	3,617	3,083	6,233	11,228	7,159	4,375	4,019	2,950	5,426
2019	2,386	2,291	2,042	2,085	2,635	4,448	4,540	4,933	10,704	10,152	7,243	6,816	5,023
2020	6,630	7,816	7,160	7,675	8,375	5,784	7,851	12,229	17,609	7,021	4,625	3,004	7,981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https://www.garak.co.kr>)

쉽지 않은 일이다. 반면 산지유통인은 자본과 상품성 판단, 정보, 작업 인부 동원, 판로 확보 등에서 개별 농가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전창근 외, 2011). 따라서 농가는 배추농업과 관련한 여러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배추농업 및 유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산지유통인과 계약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2) 산지유통인의 계약지역 선정 배경

사례 산지유통인 K씨는 전국의 계절별 주산지를 중심으로 배추 계약생산을 진행하고 있다(표 9). 봄·가을에는 강원도 준고랭지 배추주산지인 횡성·평창·

영월, 여름에는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태백·평창·강릉 그리고 겨울에는 전남 해남·진도 등 월동배추 주산지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주산지는 장기간에 걸친 배추 농업의 공간적 집중화와 더불어 지역적 전문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지난 60여 년간 배추농업의 공간적 집중화 과정을 지역별 생산추이를 통해 살펴보면(표 10) 재배면적 비중 기준으로 수도권과 부산·경남은 크게 감소한 반면 전남 지역과 강원 지역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0년 기준 각각 29.35%, 22.08%). 구체적으로 1960·70년대만 해도 수요량이 많은 수도권의 비중이 높았으나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이후 약화되기

표 9. 산지유통인 K씨의 연간 배추 계약지역

구분	봄배추		여름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
	충청남도 (예산·시절)	강원도 (횡성·평창·영월 등)	강원도 (태백·평창·강릉)	강원도 (횡성·평창·영월 등)	전라남도 (해남·진도)

자료: 산지유통인 K씨와 면담

표 10. 지역별 배추 재배면적 및 비중 변화

(단위: ha, %)

연도	전국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1960	31,423 (100.0)	7,615 (24.23)	2,240 (7.13)	2,315 (7.37)	3,209 (10.21)	3,169 (10.08)	4,192 (13.34)	4,408 (14.03)	4,022 (12.80)	253 (0.80)
1970	70,741 (100.0)	22,526 (31.84)	4,630 (6.54)	3,406 (4.81)	8,260 (11.68)	4,776 (6.75)	7,871 (11.13)	7,640 (10.80)	11,014 (15.57)	618 (0.87)
1980	47,820 (100.0)	9,292 (19.43)	7,601 (15.90)	3,143 (6.57)	5,650 (11.82)	4,356 (9.11)	5,335 (11.16)	6,340 (13.26)	5,447 (11.39)	656 (1.37)
1990	47,495 (100.0)	7,919 (16.67)	8,090 (17.03)	2,583 (5.44)	5,545 (11.67)	4,976 (10.48)	6,317 (13.30)	5,623 (11.84)	5,133 (10.81)	1,309 (2.76)
2000	51,801 (100.0)	6,754 (13.04)	11,099 (21.43)	4,186 (8.08)	4,508 (8.70)	4,770 (9.21)	10,045 (19.39)	5,870 (11.33)	3,820 (7.37)	749 (1.45)
2010	33,501 (100.0)	3,828 (11.43)	5,954 (17.77)	2,278 (6.80)	2,830 (8.45)	2,234 (6.67)	9,470 (28.27)	4,004 (11.95)	226 (6.82)	617 (1.84)
2020	30,949 (100.0)	2,490 (8.05)	6,835 (22.08)	2,701 (8.73)	1,884 (6.09)	2,255 (7.29)	9,082 (29.35)	4,411 (14.25)	1,050 (3.39)	242 (0.78)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1960~1970);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채소생산량, 198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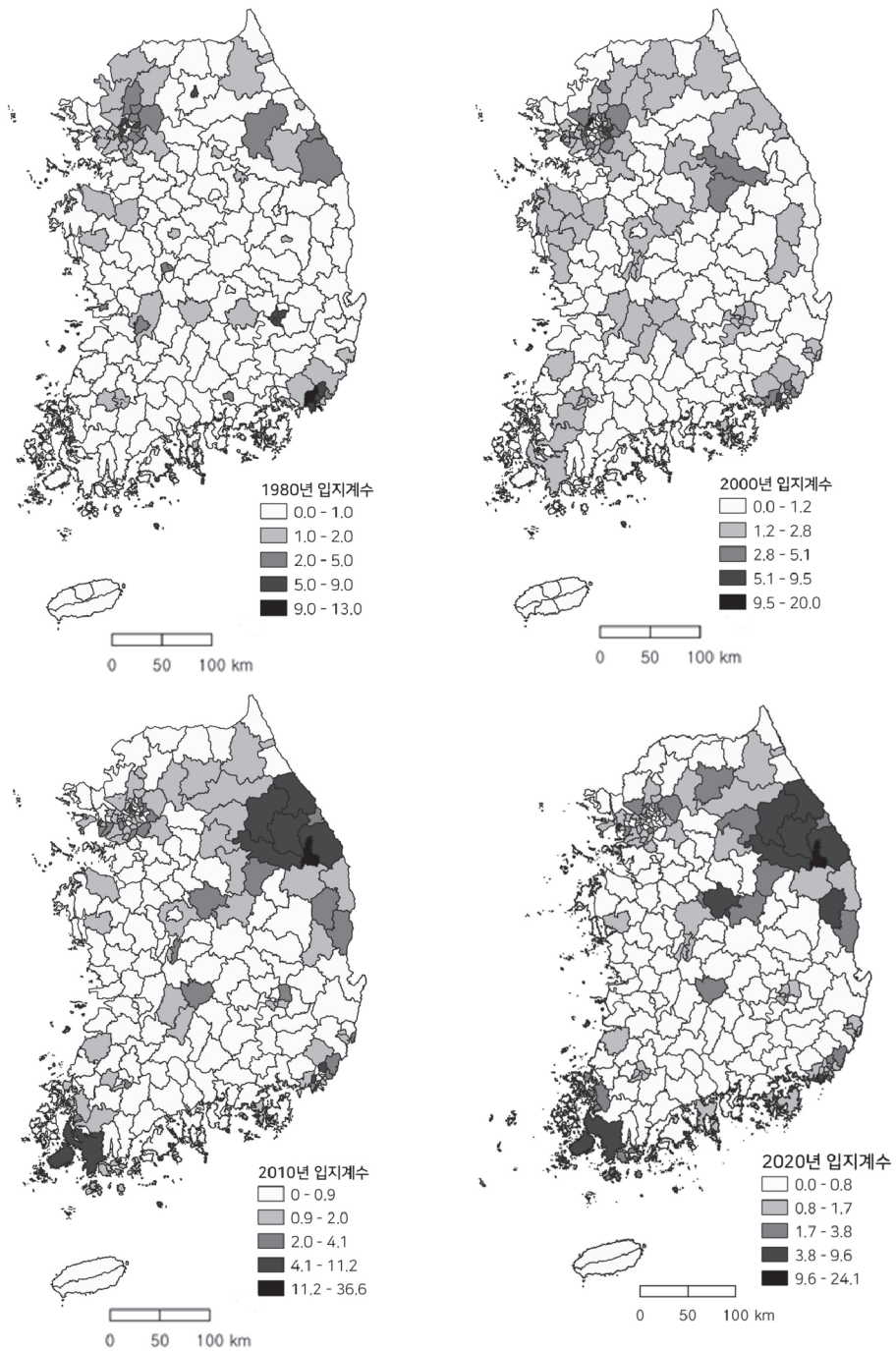


그림 2. 배추농업의 지역적 전문화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주: 배추농업 입지계수=a/b; a=시군별 배추 재배면적/시군별 전체 작물 재배면적,
b= 전국 배추 재배면적/전국 전체 작물 재배면적

시작했다. 반면 강원도의 비중은 점차 높아졌는데 이는 자연적 이점에 더하여 운송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는 전남 지역의 비중도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월동 가능한 품종이 전남 지역에 확산하면서(디지털해남문화대전) 재배 면적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산지유통인의 계약지역 선정 배경은 지역적 전문화 정도를 의미하는 입지계수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그림 2). 1980년 만해도 배추농업 입지계수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 인근 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최고점이 높아지면서 강원도와 충북 및 경북 일부 그리고 전남 해남과 진도 등에서 입지계수가 상승했다. 2020년 기준 입지계수는 태백(24.12)이 가장 높고 평창(9.61), 해남(8.24), 삼척(8.13), 영월(8.06) 등이 뒤를 잇는다. 이처럼 국내 배추농업은 공간적 집중화와 더불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전문화가 진행되었는바 사례 산지유통인은 배추가 대표 품목으로 자리 잡은 전문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계약 농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계약생산의 주체별 역할과 계약지역의 농업 변화

1) 계약생산의 주체별 역할

계약지역에서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체와 그 역할에 대한 이해는 계약지역의 농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계약주체별 역할을 보면 첫째, 계약농가는 토양관리 및 수자원 확보와 파종에서 정식까지의 전반적 농작업을 담당하고 있다(표 11). 구체적으로 계약농가는 투입물 구득, 토양관리 및 수자원 확보, 자가 육묘와 정식 그리고 재배 전 기간 물 관리 등을 책임진다. 배추는 90~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적절한 토양 수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병해충 발생 및 상품성 하락이 우려되므로 수확단계까지 이어지는 물 관리는 중요한 작업이다(농촌진흥청, 2019). 농가는 계약에 따라 정식 이후 시비 및 방제의 일부를 실시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산지유통인은 농가 선정으로부터 투입

표 11. 사례 계약생산의 주체별 역할

구분	내용	
산지유통인의 역할	계약농가 선정	· 계약농가 선정(주산지의 대농, 영농기술 우수 농가, 차량접근이 용이한 농지)
	투입물 지정 및 공급	· 배추 종자 지정 및 공급
	금융 지원	· 계약금 지급(선호 농가 여부에 따라 10~40% 차등 지급)
	기술 지원	· 초기 농작업 기준 제시
	생산 관리	· 지역별·농가별 파종·정식·수확 시기 결정 · 작황 점검을 위한 농가방문 및 수시관리 · 거래 작업팀을 활용하여 정식 이후 농작업 수행
	판로 보장	· 계약물량 구입 및 출하(상품 가치가 없는 농산물 제외) · 작황을 고려하여 잔금 지급
계약 농가의 역할	생산 관리	· 생산성 향상을 위한 토양관리 및 수자원 관련 투자 · 자가 육묘 및 정식; 수확 시점까지 물 관리 · 계약에 따라 정식 이후 시비·방제의 일부를 실시하기도 함

자료: 산지유통인 K씨, 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전 회장 B씨, 강릉시 성산면 배추농가 L씨, 강릉시 왕산면 배추농가, 평창군 방림면 배추농가 L씨, 횡성군 D기업 직접계약 농가 L씨, 해남군 회원면 배추농가 S씨 등과의 면담 내용을 종합한 것임.

물 지정 및 공급, 금융 지원, 기술 지원, 생산 관리, 판로 보장 등을 책임진다(표 11). 첫째, 산지유통인은 배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배추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배추 농업지역 및 지역 농가의 생산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농가를 선정한다. 이들 주산지는 다수의 농가가 집중 분포하고 있어 마을단위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계약농가의 군집화는 계약자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특징이다(Hart, 1978). 이는 작황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농가 관리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보통 20개 농가들 이렇게 해서 단지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배추 농사는 조금만 아차 하면은 망하거든요. 1번에서 망해도 2번에서 이거를 극복이 된다 그러면 김치공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물량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 고려지 연구소 P연구관 면담(2022. 7. 4)

계약농가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을 보면, 우선 좋은 품질의 배추를 균일하게 생산하는 영농수준이다. 이는 농가의 토양 관리 및 물 관리 기술 및 투자와도 관련된다. 또한 산지유통인은 농가 및 작물 관리의 수월성을 위해 가급적 대농을 선호한다. 실제로 산지유통인 K씨(강원도 기준 100여 농가, 198.3ha 계약, 2022. 1.

11 면담)의 농가 당 계약규모는 최대 26.4ha(8만 평)에 이르고 평균 규모는 약 1.98ha다. 이는 전국 평균 재배면적(0.16ha)의 12.4배이고 강원도 평균 재배면적(0.44ha)의 4.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표 12).

계약농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농가는 계약이 빠르게 완료되며 가을배추 수확 시점에 이미 차년도 봄가을 배추 계약이 완료된다. 산지유통인은 선호 농가와 장기 계약을 맺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거나 작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농가 사정을 감안하여 잔금을 정산하기도 한다(산지유통인 K씨 면담, 2022. 6. 30). 배추농가의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산지유통인들 사이에서는 농가를 둘러싼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농가 선정과정은 산지유통인의 일방적 의사결정 과정이라 보기 어렵다. 다음은 선호 농가에 대한 유통인의 경쟁과 농가의 입장을 보여준다.

농가는 물건을 잘 키워야해. 아주 잘 키운 한 사람을 두고 유통인들도 경쟁이야.

- 산지유통인 K씨 면담(2022. 6. 30)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간편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산지유통인을 택하는 거예요.

- 평창군 방림면 배추농가 L씨 면담(2022. 6. 14)

둘째, 산지유통인은 계약농가에게 가장 적합한 종자를 지정하여 공급한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활동하

표 12. 배추 재배 규모별 농가와 농가 당 재배 면적(2020년)

지역	재배 규모별 배추 농가 (가구, %)						배추 재배면적(ha)	
	배추농가 합계	0.1ha 미만	0.1~0.5ha	0.5~1.0ha	1.0~2.0ha	2.0ha 이상	재배면적 합계	농가당 재배면적
전국	138,394 (100.0)	114,666 (82.9)	15,921 (11.5)	3,648 (2.6)	2,292 (1.7)	1,867 (1.3)	22,236.5 (100.0)	0.16
강원	12,448 (100.0)	8,475 (68.1)	2,649 (16.5)	751 (6.0)	552 (4.4)	621 (5.0)	5,518.3 (24.8)	0.44
전남	20,121 (100.0)	12,797 (63.6)	3,976 (19.8)	1,500 (7.5)	1,081 (5.4)	767 (3.8)	7,275.1 (32.7)	0.36

자료: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면서 주산지 농가 및 여타 산지유통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일부 농가와 시험재배를 실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품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약지역의 자연조건 및 출하처의 요구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정 종자를 대량 공급한다.⁵⁾ 셋째, 산지유통인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수준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농가에 금융지원을 한다. 이러한 계약금은 농가가 파종부터 정식을 마무리할 때까지 초기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며 선호 농가 여부에 따라 10~40%까지 차등 지급된다. 넷째, 산지유통인은 계약 시 초기 농작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을 한다. 구체적으로 재식거리나 기후 및 토질을 고려한 추비의 종류와 양 등인데 재식거리는 계약서에도 명시된다. 다섯째, 산지유통인은 농가와 계약한 물량 전체를 구매하여 농가의 판로를 보장한다. 사례 산지유통인은 상품가치가 없는 배추를 제외한 물량에 대해 잔금을 지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지유통인은 계약 농지에 대한 생산관리에 적극 참여하며 영농 후반기의 생산 주체로 활동한다. 산지유통인과 농가 간 계약생산은 “정식 후 곧바로 산지유통인이 농산물 생산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밭떼기”와 구별된다(김동환·변신의, 2011). 산지유통인은 계약지역의 자연조건 및 출하처의 요구를 고려하여 농가별 파종 및 정식 시기와 수확 시기를 결정하고 방문 및 수시 연락을 통해 농가의 생산 활동을 관리한다. 정식 이후에는 생산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업팀(10명 내외)을 활용하여 영농활동에 나선다.

정식하고 나서 비료, 약 주는 일 같은 거는 우리가 다 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써서 관리해요. 인부들은 용역을 통해서. 거의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작업반장도 이제는 외국인이야. 국적은 보통 중국, 태국. 한 팀이 보통 8명에서 12명이고 5조 정도 쓰죠. 수확할 때는 남자, 여자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남자가 더 많지.

- 산지유통인 K씨 면담(2022. 1. 11)

이처럼 배추농업에서 산지유통인이 후반기 농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부터”다(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전 회장 B씨 면담, 2024. 1. 28). 이는 산지유통인 K씨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배추가 다른 농작물과는 달리 정식 이후에 산지유통인이 농사를 짓는데 그건 한 15년~20년 됐지.

- 산지유통인 K씨 면담(2022. 8. 31)

2) 산지유통인의 역할과 계약지역의 농업변화

산지유통인은 대부분의 계약생산 과정을 주도하며 계약기업과 계약지역을 연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계약지역의 농업변화를 수반하는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산지유통인은 주산지 배추농업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서 생산의 전과정을 총괄하면서 계약지역 배추농업 전반을 통제함에 따라 기존 농업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산지유통인은 지역별로 적절한 품종을 선정하고 이를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물론 파종시기와 수확시기를 결정하는 등 과거 농업인의 핵심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둘째, 산지유통인은 재배시기와 수요처의 요구 조건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재배기술을 적용 및 전파하면서 계약지역의 농업관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산지유통인은 대농과의 계약을 선호하고 농가의 판로를 보장함에 따라 배추 주산지에서 농가 수준의 집중화에 의한 규모경계를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산지유통인은 계약농가의 후반기 농작업을 전담함에 따라 2000년대 초부터 배추 주산지에서 농업인에 버금가는 핵심적인 영농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계약농가와 산지유통인의 영농 활동을 정리해보면 영농기간 90일 기준으로 농가는 파종-육묘 단계부터 정식까지 약 35~45일 정도를 관리하고 산지유통인은 이후 약 45~55일 정도를 관리한다(표 13).

배추농업은 다른 작물과 달리 산지유통인이 농작업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데 그 배경은 산지유통인의

표 13. 계약지역의 주체별 농작업 구성

구 분	영농 주체			
	계약 농가 (정식 후 10~20일까지, 약 35~45일 관리)		산지유통인 (약 45~55일 관리)	
주요 농작업 (전체 90일 소요 기준)	파종·육묘 (25일 내외 소요)	정식	시비 · 정식 20일 후 1차 추비 · 1차 추비 30일 후 2차 추비	수확 및 출하
	경운·정지 (살균제·살충제·밀비료·석회 투입) 비닐멀칭		방제 · 주 1회 방제 · 날씨에 따라 가감	
	농가: 전 기간 물 관리			
	산지유통인: 전 기간 생산 총괄(농가 선정, 종자 지정, 금융지원, 기술지원, 파종시기 결정, 농가의 생산 활동 점검, 인력 동원, 수확시기 결정, 출하처 확보, 선별 출하)			

자료: 산지유통인 K씨, 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전 회장 B씨, 평창군 방림면 배추농가 L씨, 강릉시 성산면 배추농가 L씨, 강릉시 왕산면 배추농가, 횡성군 D기업 직접계약 농가 L씨, 해남군 화원면 배추농가 S씨 등과의 면담 내용을 종합한 것임.

요구와 계약농가의 요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산지유통인은 기업과의 계약물량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해 영농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 배추는 농가별 시비·방제 물질과 횡수가 상이할 경우 균일한 작물을 생산하기 어렵다. 또한 배추는 생육기간이 짧고 잎이 넓어 관리 방식에 따라 수량이 10배까지 차이가 나므로 후반기 품질관리는 생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령지 연구소 연구관 P씨 면담, 2022. 7. 4). 따라서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에 주력하게 된다. 이밖에 배추 농가와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산지유통인의 농작업은 기존 농가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신규 농가를 발굴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영양제 같은 걸 많이 쳐주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버텨. 비가 많이 와서 망가져도 버티는 힘이 있고 배추가 썩어서 꼰통 된다고 하잖아. 그런 상태가 되어도 버틸 수가 있어. …… 농사꾼이 농사를 지으며는 농약을 소독하는 거를 잘 못하고, 또 그분들은 돈을 많이 들어서 못해. 싸게나 치려고 그랬지.

- 산지유통인 K씨 면담(2022. 6. 30)

둘째,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문제에 직면한 배추농

가는 농작업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인을 선호한다. 실제로 국내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1.8%에서 2022년 49.8%로 급증했다(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전국을 순회하며 농작업을 수행하는 산지유통인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관련 분석에서도 산지유통인과의 청과물 거래 배경으로 농가 고령화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지적되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다음 증언은 이를 잘 설명한다.

이전에는 전부 내가 농사지었는데 나이 먹고 힘드니까 계약재배로 하게 됐지. 계약한 지는 약 16~17년 정도 됐어. 계약재배는 산지수집상들이랑 하는데 …… 산지수집상들은 종자, 비닐을 주고 거름, 약 관리까지 하고 농가는 밀거름만해서 정식하고 물만 주면 끝나. 그러니까 편하지.

- 해남군 화원면 배추농가 S씨 면담(2022. 2. 24)

농촌은 지금 일손이 없고 거의 다 고령이시거든요. 이제 그냥 심어놓고 이제 정식해놓고 다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산지유통인]이 거의 다 수확까지

표 14. 국내 발작물 주산지의 농작업별 기계화율(2021년)

작물	평균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평균	71.5	100.0	20.6	90.1	99.1	47.6
배추	60.1	100.0	2.6	98.2	99.8	0.0
무	64.5	100.0	10.5	99.3	99.8	12.8
고추	57.3	100.0	0.0	87.4	99.0	0.0
마늘	67.8	100.0	21.0	63.2	97.0	57.9
양파	66.9	100.0	18.4	89.0	99.4	27.5
감자	81.4	100.0	11.4	98.0	99.3	98.2
고구마	79.6	100.0	1.5	98.0	99.5	99.2
콩	92.5	100.0	74.4	94.0	99.3	95.0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이용 실태 조사

또 유통까지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 한국농업유통법인 중앙연합회 부장 L씨 면담
(2022. 12. 26)

이와 같은 농가의 요구는 기계화율이 낮은 작물의 특성에도 관련되는데(표 14) 배추의 기계화율은 파종·정식 단계에서 고추(0.0%), 고구마(1.5%)에 이은 2.6%이고 수확 단계는 고추와 함께 0.0%로 가장 낮다. 노지 엽채류의 수확 단계는 농업 선진국에서도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계화율은 해당 농작업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산지유통인의 영농활동은 기계화 수준이 낮은 배추 농업에서 산지유통인의 물량 및 품질에 대한 요구와 주산지 농가의 농작업에 대한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이해된다. 최근 노지채소 부문에서 산지유통인들은 계약생산과 함께 임차농으로 생산에 직접 참여 하면서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까지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더 바이어, 2023a). 계약생산이 앞서 발전한 미국의 채소 농업지역에서도 파종·육묘로부터 정식·수확·가공·수출을 기업이 책임지는 형태의 계약생산이 가공용 채소를 중심으로 보편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차 산지유통인의 역할은 기존 후반기 농작업으로부터 계약 품목의 생산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최대 김치제조업체 D기업에 원료배추를 공급하는 산지유통인과 배추 주산지 농가 간 계약생산을 대상으로 계약생산의 주체별 역할을 규명하고 계약생산에 의한 계약지역의 농업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배추는 저장성이 낮은 집중출하 작물로서 생산의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으로 인해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작물이다. 사례 계약생산은 이와 같은 품목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유통인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유통인과 주산지 농가 간 계약생산에서 계약지역 배추농업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가 농업인으로부터 산지유통인으로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선 산지유통인은 주산지 배추농업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서 생산의 전과정을 총괄하면서 계약지역 배추농업 전반을 통제함에 따라 기존 농업인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지역의 농업관행과 영농규모 등에 변화가 수반되었다. 또한 산지유통인은 지난 20여 년간 계약농가의 후반기 농작업을 전담함에 따라 배추 주산지에서 농업인에 버금가는 핵심적인 영농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계약물량 확보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산지유통인의 요구와 고령농의 증가 및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주산지 농가의 농작업에 대한 요구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지유통인은 계약지역 농업에서 의사결정의 주체로 그리고 농작업의 실질적 행위자로 자리매김 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노지배추 주산지의 농업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산지유통인에 의한 계약생산과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산지 농업에 대한 통제력으로 보건대 계약생산은 농지 소유권의 변동 없이 규모경제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례 산지유통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농가와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배추 주산지에서 계약주체들은 계약상대에 관한 정보를 밝히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배추 주산지의 계약생산이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타 농가들에 대한 면담 내용으로 이를 보완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고령지연구소 P연구관의 설명에 의하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봄·가을배추와 여름배추 재배지는 해발고도 800m를 기준으로 각각 600~800m(준고랭지), 800m이상(고랭지)으로 나뉜다. 준고랭지에서는 6~7월에 봄배추, 9~10월에 가을배추가 출하되고 있다.
- 2) 김치산업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김치산업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조재선, 2016), 둘째, 김치 생산, 소비, 유통, 수출입 등 산업 현황에 관한 연구(한우성, 2020; 박완수 2020), 셋째, 주요 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관련 연구(강이주·유두련, 2001) 등이다.
- 3) 유통실태 조사에서도 배추를 비롯한 엽근채류는 산지유통인의 거래비중(81.3%)이 가장 높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최근 들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보전 차원에서 산지유통센터(APC)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활동이 일부 축소되었으나 산지유통인은 지금도 생산

자단체가 기피하는 중량의 농산물, 예컨대 배추, 수박, 건고추, 감귤, 양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더바이어, 2023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 4) T농협을 제외한 나머지는 각각의 계약자가 작업팀을 고용하여 후반기 농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T농협은 시비·방제·수확 관련 작업팀과 계약하여 농가에 연계하고 농가는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는 전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 5) D기업을 비롯하여 품목농협이나 지역농협은 계약농가에게 품종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작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참고문헌

- 강이주·유두련, 2001, “김치의 상품화로 전통 소비문화를 선도한 두산 증가집의 성공요인과 향후 과제,” 소비문화연구 4(3), pp.163-184.
- 김광영·황경순·박채린·조재선·朝倉敏夫·趙榮光·劉曉春·강정원·윤덕노·김일련·한경구, 2013, 김치와 김장문화의 인문학적 이해, 세계김치연구소.
- 김동환·변신의, 2011, 산지유통인 법인화 등 제도권 편입방안,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연구보고서, 농식품신유통연구원.
- 김완배·김성훈, 2001, “농업부문의 수직결합 활성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 계약생산을 중심으로,” 식품유통연구 18(3), pp.1-27.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0 시설채소온실현황 및 채소류생산실적.
- 농촌진흥청, 2016, 농업경영관리길잡이⑨ 배추경영관리.
- 농촌진흥청, 2019, 농업기술길잡이128(개정판) 배추.
- 박완수, 2020, “김치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식품과학과 산업 53(2), pp.166-182.
- 세계김치연구소, 2019, 2018년도 김치산업 동향.
- 세계김치연구소, 2021, 2019 김치산업 실태조사.
- 세계김치연구소, 2023, 2021 김치산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 이현정·장영진, 2022, 제과용 원료 감자의 계약생산과 계약지역 감자 농업의 산업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4), pp.451-468.
- 장영진, 2013, “계약생산과 초국적 농식품 체계: 제주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농업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4), pp.585-596.

- 장영진, 2015, “계약생산에 의한 기업 주도형 유기농 단지의 형성: 전라북도 고창군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4), pp.522-538.
- 장영진, 2016a, “계약생산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3), pp.535-549.
- 장영진, 2016b, “대형마트와 농가 간 계약생산에서 계약기업의 수직적 조정과 계약농가의 토지이용: 충청남도 부여군 일대 수박 주산지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pp.712-728.
- 장영진, 2018,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설원예농업의 집약화와 공간적 집중화: 참외농업 시설재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 pp.273-288.
- 전창곤·최병욱·김동훈, 2011,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태와 확대방안,” 농정연구속보 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재선, 2016, “김치산업의 발달사,” 식품과학과 산업 49(4), pp.70-81.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3, 2022년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4, 2022년 유통실태 종합.
-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편찬위원회, 2008,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응수, 2020, “한국 김치산업의 발전과 전망,” 식품과학과 산업 53(4), pp.422-434.
- Barrett, H., Browne, A. and Ilbery, B., 2004, “From farm to supermarket: the trade in fresh horticultural produce from sub-Saharan Africa to the United Kingdom,” in Hughes, A. and Reimer, S.(eds.), *Geographies of Commodity Chains*, London: Routledge, pp.19-38.
- Biswas, A., Singh, B. and Kumari, G., 2013, *Impact of Contract Farming in West Bengal, India*, Lambert Academic Publishing.
- Da Silva, C., 2005, *The Growing Role of Contract Farming in Agri-Food Systems Development: Drivers, Theory and Practice*, Rome: FAO.
- Hart, P., 1978, “Geographical aspects of contract farm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upply of crops to processing plants,”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69(4), pp.205-215.
- Imbruce, V., 2008, “The production relations of contract farming in Honduras,” *GeoJournal* 73(1), pp.67-82.
- Morrison, P., Murray, W. and Ngidang, D., 2006, Promoting indigenous entrepreneurship through small-scale contract farming: The poultry sector in Sarawak, Malaysi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7(2), pp.191-206.
- Otsuka, K., Nakano, Y. and Takahashi, K., 2015, *Contract Farming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London: SAGE.
- Pritchard, B. and Connell, J., 2011, “Contract farming and the remaking of agrarian landscapes: Insights from South India’s chilli belt,”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32(2), pp.236-252.
- Watts, M., 1994, “Life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grarian restructuring and flexible accumulation,” in Little, P. and Watts, M.(eds.),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pp.21-77.
- 더 바이어, 2023a, “계획생산으로 ‘수급안정화’ 전처리로 부가가치 창출,” 5월 20일, <https://www.withbuyer.com> (최종열람일: 2024년 1월 28일).
- 더 바이어, 2023b, “산지유통인 통한 출하 비중 증가,” 5월 20일, <https://www.withbuyer.com> (최종열람일: 2024년 1월 28일).
- 교신: 장영진, 2817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전화: 043-230-3508, 이메일: jangyj@knue.ac.kr
- Correspondence: Youngjin Ja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28173, Korea, Tel: +82-43-230-3508, E-mail: jangyj@knue.ac.kr

최초투고일 2024년 03월 01일

수정일 2024년 03월 12일

최종접수일 2024년 03월 18일